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해
**100만 명의 아이들이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2016.10.18 (화) 오전 9시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관·발행



후원



진주교 시흥대교구



ACN은

- Aid to the Church in Need의 약자로,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톨릭교회를 지원합니다.
- 교황청 직속 재단으로, 전 세계 21개국에서 모금활동을 펼치며 한국은 21번째, 아시아 최초로 지부를 열었습니다.
- 독일 쾰히슈타인에 위치한 총사무국을 중심으로 각 나라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 매년 140여 개국에서 6,2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 알리고,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은 하느님 나라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한 분 더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나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이고, 우리는 그 어머니를 ‘성모님’ 또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도 부른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정말로 우리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께서 이 땅에 사셨던 2000년 전, 직접 낳아 정성껏 기르고 키우고 사랑하신 아들,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어머니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머니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았던 아들 중 가장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께서 또한 여러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께서 당신을 돌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돌보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벌써 하느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를 직접 만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을 담아 어머니를 찾으면, 어머니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머니께 무엇이든 부탁드리면,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형이나 오빠, 언니나 누나를 위해, 동생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도 된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께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어머니께 맡긴다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되어 주시기를 요청한다면, 어머니는 여러분을 두 팔로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성모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며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탁드린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느님의 완벽한 뜻을 어머니께서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비록 당장 깨닫지는 못하지만요. 어머니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시답니다.

콜카타의 마더 데레사 성녀님의 이야기를 들어 본 적 있을 거예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우신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느님 나라에 계신 성인이시랍니다. 그렇다면 성녀님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녀님이 여러분 또래이셨을 때, 성녀님의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성녀님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답니다. “네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너는 언제나 성모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한다. 네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어머니의 이 말씀을 성녀님은 하느님 나라에 가시기 전까지 평생 동안 잘 듣고 따르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모님을 직접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지?”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묵주라고 부르는 작은 구슬들이 있지요. 여러분이 묵주를 손에 들고 구슬을 하나씩 만질 때마다 성모송을 바치면, 여러분은 하느님

어머니 성모님과 손을 잡고 있는 거랍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약속해요. 여러분은 이 넓고 넓은 세상 중 그 누구나, 혹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지요. 참 멋진 일이지요? 그러나 이 멋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필요하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성모님께서 무서운 전쟁이나 온갖 나쁜 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며 성모님을 도와드려야 해요.

아직 묵주기도 하는 법을 모른다면,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똑똑한 여러분은 쉽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묵주기도를 한단 한단, 기쁜 마음으로 바치게 될 거예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 여러분은 어머니 성모님의 손을 잡고, 아직 성당에 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보호하시는 성모님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사실어요.

고마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2016년 9월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묵주기도 방법

1. 성호경
2. 사도신경
3. 주님의 기도, 성모송 3회, 영광송
4. 신비 1단
5.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회, 영광송, 구원을 비는 기도
6. 신비 5단까지 반복합니다.
7. 성모찬송과 성호경으로 마칩니다.



성호경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종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송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구원을 비는 기도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성모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어린이를 위한 묵주기도 -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스스로 많은 고통을 겪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시고자 올리브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위로를 받으셨고,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는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당신을 위로하며, 인간의 죄로 인한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 용서를 구하려 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로 그들을 위로하소서.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군사들은 선한 일만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묶고 매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사이들과 학자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민족들을 부추겼습니다. 총독이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지만, 군중이 두려워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로 그들에게 힘을 주소서.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니다.

매질 후에 군사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가시로 예수님의 손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도 막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그냥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정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자신들의 힘을 잘못 사용하는 모든 정부와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의 평화,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키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도왔고, 베로니카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땀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성모님도 가슴 깊이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슬퍼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과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골고타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양옆에는 죄수가 두 명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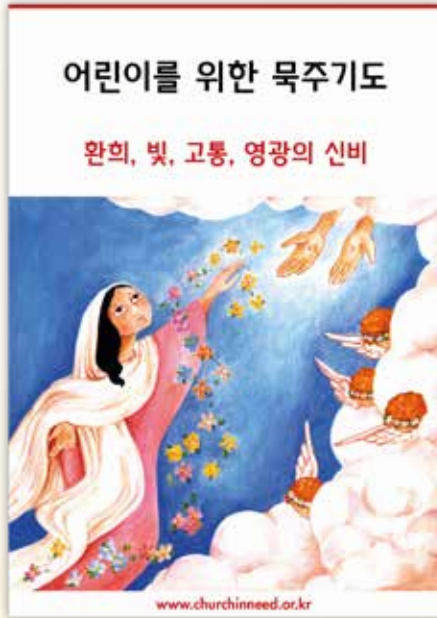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하시며 박해하던 모든 이를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한 죄수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어머니 마리아님께 우리 모두를 위탁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성모님의 모성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마리아님, 나의 어머니여
저는 오늘 한없는 기쁨으로 당신께로 갑니다
저의 온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또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제가 행한 모든 것을
저의 모든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이를
당신께로 데려 갑니다.
저의 부모, 저의 형제자매,
저의 모든 친구들,
또한 제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이들을.
저희 모두의 어머니가 되어 주시어
축복하고 보호하여 주소서.
저는 당신의 자녀가 되고자 합니다.
친어머니와 같이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온전히 믿고 기도드립니다.
제가 당신께 속해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어머니. 저는 이제와 또한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을 통해
언제나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을 저는 다짐합니다.
아멘.



「어린이를 위한 묵주기도」

호아킨 알리엔데 루코 신부님 지음

하 안토니오 몬시뇰님 옮김

72쪽 | 문의: 02-796-6440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 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작은 기도서를 전해 주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이 성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알록달록한 묵주알이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를 바치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 묵주기도를 어떻게 바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장 하 안토니오 몬시뇰님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전화 | 02)796-6440 팩스 | 02)796-6439

이메일 | info@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명 |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홈페이지 | www.churchinneed.or.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acn_korea

교황청
재단

